농어업 유산제도의 도입

농어업 유산자원이란?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말레이계인 이푸가오 족은 기름지지만 전쟁의 연속이었던 평야를 벗어나 바다를 떠다니다 필리핀의 루손(Luzon) 섬에 상륙했다. 농경족이었던 그들은 정착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먼저 터를 잡고 있는 다른 부족들에게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갔고 해발 2천미터를 넘나드는 산악에 터를 잡았다.

이푸가오 족은 바위와 수풀이 차지하고 있던 산악을 개간하고 논둑은 돌과 진흙을 이용해 쌓았으며, 물을 가둘 수 있도록 평지화해 경작지로 탈바꿈시켰다. 벼농사에 필수적인 관개(灌溉)시설은 대나무관(管)을 이용해 구축했다. 이렇게 그들은 2천여년 동안 깎아지른 산을 맨손으로 개간하여 1만㎢가 넘는 면적의 계단식 논을 만들었다. 한 층 한 층 만든 계단식 논이 100층이 넘는 곳도 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유구한 세월과 그들의 혼이 산기슭에 새겨진 셈이다.

농어업 유산자원이란 이처럼 어떤 국가나 민족 또는 산업의 주체가 지역사회나 자연환경에 적응·극복하면서 수세기 동안 구축하고 발전시켜 온 문화

필리핀과 중국의 다랑이논

나 전통 및 경관 중 농경활동이나 어로활동 등과 결합된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농어업 유산자원의 현황

언어학자이며 사회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Helena Norberg Hodge, 미국, 1947~)는 인도의 라다크 마을에 살면서 집필한 저서 「오래된 미래」에서 "개발은 자본의 도입을 절대적인 진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류의 경제구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지만 지역의 자원들을 기반으로 한 비화폐 경제체제나 자급 경제체제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전통문화는 그 지역의 자원으로서 의식주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특정한 환경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런데 자급하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유의 문화와 독립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그것은 인류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도의 '라다크' 마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의 영향력은 자본과 에너지의 집약적인 산업형 농경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고, 소규모의 경작을 통해 살아가던 농어민의 이농을 강요하며, 소비지향적 획일적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정체성의 근본을 흔듦으로써 전통자원을 하나 둘씩 우리의 주변과 향수에서 사라져가게 하고 있다.

농민의 애환과 땀이 서려있는 지천에 널려있던 산골의 다랑이 논은 쌀값 하락, 기계작업의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시장경제 논리 등에 밀리고 버려져서 하나하나 사라지거나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오던 제주의 소금빌레(돌염전)는 수입 소금과 대규모 현대식 염전으로 인해 그 명맥을 이어가기도 버겁다. 또 돌담길 · 유채꽃 · 탁 트인 바다 등 수려한 경관에 초분과 고인돌 · 성터 · 사당 등의 역사자원, 여기에 농민의 한이 서린 구들장 논, 다랑이 논 등의 유산자원이 어우러진 청산도는 무분별한 개발과 의식 없는 현대화로 전봇대와 시멘트로 덮여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이 가꾸어 온, 농경사회가 이루어낸 발자취는 사라지고, 전통과 가치 있는 유산은 황폐화되고, 수세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농어업은 정체성을 잃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민족문화와 향토자원의 본질까지도 훼손되고 말 것이다.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세계환경자금(Global Environment Fund)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이나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농업유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2002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를 도입하였다. GIAHS에서 지정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농업제도 및 생태경관 지역,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지역, 고유한 농사지식체계의 적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통적 농업제도와 생물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지식체계들이 정책 및 시장의 실패, 빈곤 및 인구 압력, 부적절한 개발전략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가된 제도를 만들자는 동기에서 발의된 것이다.

〈표 1〉 FAO GIAHS 지정 세계중요농업유산

시범지정유산	후보지정유산
안데스 농업(페루) 치로에섬 농업(칠레) 이푸가오 다랑이 논(필리핀) 마그레브 오아시스(알제리아, 튀니지) 송사리 농법(중국) 한니족 계단식 논(중국) 완니안 전통쌀 문화 시스템(중국) 목가 마사이 시스템(케냐, 탄자니아) 계단식 논과 해변 농작(일본) 따오기 공생 농법(일본)	밀파 솔라 시스템(멕시코) 치남파 농업시스템(멕시코) 레몬 밭(남부 이탈리아) 전통농업-생태시스템(카르파티아 지역) 코라푸트 지역의 전통 농업(인도) 소피나 베타스(Soppina Bettas) 시스템(인도) 카나트 관개체계 및 Homegardens(이란) 콰시카이 유목 목가(이란) 웨웨(Wewe) 관개시스템(스리랑카)

FAO에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인간의 부주의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과는 별도로 세계농업유산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세계문화유산은 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세계농업유산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물리적인 것을 형성하는 농어업활동에 대한 것까지도 동시에 포함하여 지정,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농업유산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혁신적 제도의 마련,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역은 물론 세계적인 편익을 창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FAO에 등재된 농어업유산은 이탈리아 남부의 바닷가에 펼쳐진 계단식 레몬밭, 사하라사막의 오아시스 농장, 이란의 고대 지하관개수로, 일본의 전통적인 따오기 공생농법 등 총 19종이 있다.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제도 도입

역사적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패퇴하여 자신들의 땅을 잃고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멸하는 강대국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당당히 그 역사를 잇고 있다. 우리들은 자부심을 갖고 후세에도 우리의 정신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이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 · 진화해

〈표 2〉 한국농어업유산 지정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유산의 가치성	현저한 특징	· 고유의 전통적 농림어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에 독특한 특징(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토지 및 수자원이용,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공동체의 농림어업 지식체계와 기술)을 현저하게 나타낼 것
	역사성	· 과거로부터 농어촌주민의 농림어업활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승된 것 · 미래까지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 지역별 · 분야별로 대표성(국제적 · 국가적 ·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농업 · 임업 · 어업 · 축산 등의 분야별 대표성)이 있을 것
파트너십	협력가능성	·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주민참여성	· 보전 · 유지 ·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 활동이 있을 것
효과성	지역가치 향상	·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이미지 ·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소득향상	· 도농교류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생물다양성 향상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을 것

온 보전 · 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제도를 금년에 도입하였다.

지정대상은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생산기술, 토지이용, 물관리 등)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범위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기준은 〈표 2〉와 같이 FAO의 GIAHS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화하였다.

농어업 유산의 지정 절차는 시도(시군)에서 유산자원을 조사 · 발굴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농어업유산자원지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거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면 한국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유산자원으로 지정되면 1단계로 멸실 · 훼손 · 변형자원은 복원하여 유산자원의 가치 · 품격 · 전통성 등을 갖추도록 하고, 2단계로 유산자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방문객에게 혐오감을 갖게 하는 주변 환경(마을 길, 폐가, 담장, 지붕, 배수로, 방치 폐기물 · 시설 등)을 정비하고, 3단계로는 유산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농어촌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변에 산책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고 해설가 등을 양성하며, 마지막으로 FAO의 GIAHS에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맺는 말

1997년에 제정한 「문화유산헌장」(문화체육부공고 제1997-76호)에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농어업이나 농어업 문화를 단순히 개발중심적, 경제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은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식량 제공, 경관 유지, 풍수해 예방, 교육 · 학습, 생물다양성 유지, 전통문화의 보전 등)를 무시하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폄훼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어업 유산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자산이기도 하지만,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우리의 국토공간을 차별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인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국의 농어촌 현장에 남아있는 전통적이면서 고유한 농어업 유산을 파악하고, 이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한다면 우리의 삶과 미래는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는 「오래된 미래」라는 모순된 저서명을 지으며 우리에게 '유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만 그것에 우리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김경두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dooo@korea.kr